

# “지방교부세 지연 우려… 집행 촉구”

### 12개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회에 건의 “올해도 국세 수입 부족… 지방 재정위기 심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고창)은 16일 국회를 찾아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 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호·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을 잇따라 만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와 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 지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즉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이날, 부산·세종·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국회를 찾았고, 전북 등 전국 12개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동참했다.

이날 광역의회 예결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2024년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약 29.6조 원 부족할 것으로 발표하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이미 2023년에도 발생한 바 있고, 당시 정부는 7.1조 원의 보충

교부세와 10.1조 원의 보충교부금을 미지급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채 발행을, 각 교육청은 부족한 재원을 기금으로 충당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역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주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의 국가의 부담을 지방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민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추가 감액은 지방의 재정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정부에 지방재정의 지립성을 보장하고, 미지급된 교부세와 교부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



김성수 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한 12개 광역의회 예결위원장은 이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찾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다.

김성수 예결위원장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방에 있다”면서 “12개 광역의회 예결위원장과 함께 건의한 만큼 정부의 신속한 결단과 책임있는 조치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건의

안 내용을 기재위 위원들에게 전달하겠다”며,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지고 보완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도 “지방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제안해 주신 내용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넷플릭스 3.3조 투자 유치 尹대통령 부부 성과 맞나?

### 민주 김윤덕 의원 “문체부 보여주기식 대통령 내외 치적 홍보, 그만해야 할 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의 넷플릭스 3.3조 투자 유치 성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대한 관리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임에도, 투자 계획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부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이미 넷플릭스의 투자 규모는 연평균 최소 7,100억에서 7,800억 가량이 되어 왔고 한국콘텐츠의 수요는 점점 높아지기에,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현재 넷플릭스는 한 해 최소 8천억 이상을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터여서, 같은 규모로만 4년 투자해도 3조 2천억이기에 작은 투자 유치는 대통령 부부의 ‘특별한 외교성과’가 아닌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투자 유치 외에도 넷플릭스-한국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 디즈니플러스-국가유산청 등 현재 정부 부처와 OTT 플랫폼과의 업무협약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단순하게 ‘투자 유치 및 업무협약’을 맺었다”에서 끝이 아닌, 관계기관의 관리·점검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본래 취지에 맞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국민과 함께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활동 다짐

## 제21기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공연장에서 제21기 전북지역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송현만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부의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공연장에서 전북지역 자문위원 6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1기 전북지역회의’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민주평통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의 비전과 로드맵을 담은 ‘8·15 통일 doktrin’의 취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자유의 의미와 자유의 가치체계에 대해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지혜를 모으는 공론의 장이 됨은 물론, 우리의 하나된 행동과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준비’의 목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먼저, 통일부 김상국 정보분석국장이 나와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그리고, 전북지역회의 제21기 활동 현황 보고에서 이두형 전북지역회의 간사는 “따뜻한 이웃사촌 멘토링 결연식”을 비롯해 전북지역 14개 협회회의 활동 현황을 보고했다.

정책건의에서는 ‘8·15 통일 doktrin’에 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 먼저 신기현 상임위원이 따뜻한 이웃사촌 멘티로 참여하고 있는 △대행기관 연석회의 개최를 통한 통일운동 강화와 북

한이탈주민의 역할 확대를 주제로 건의하였고, 정읍시협의회 고보결 청년분과위원장이 △전북 농업특화 청년중심의 첨단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해 건의했으며, 부안군협의회 김옥태 간사가 △통일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전북지역 자문위원들은 국민과 함께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준비와 ‘8·15 통일 doktrin’ 실현을 위한 의지를 결집하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결의문’을 조영순 여성위원장과 윤길준 군산시협의회 청년분과위원장이 대표로 낭독하고 참석한 모든 자문위원이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8.15 통일 doktrin’ 공감대를 확산하고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제창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만호 기자

# “새만금수목원 예산 242억 확정시 88억 추가손실”

## 민주 이원택 의원



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파악됐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의 잔여 사업비는 총 1,277억 원이며, 수목원은 2027년 2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2025과 2026년도 예산에 적어도 500억 원 이상씩 반영해야 토목 및 조경공사 등 개원을 위한 공정이 완료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반영한 국립새만금수목원 예산은 잔여 사업비의 19%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해당 예산 편성비율을 고려하면 국립새만금수목원 개원이 2029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만호 기자

#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 5차 토론회 개최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의 5차 토론회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 간담회의실에서 과기부 유상임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AI 기술이 국가적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야임을 강조했다. 특히, AI 기술은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응용 기술에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국립새만금수목원 2025년 예산이 242억 원으로 확정될 경우, 공사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토목, 조경, 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88억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새만금수목원의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242억원으로 부처에서 요구한 593억원의 40.8%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이 예산이 확정될 경우 공사 기간은 2027년 2월에서 12월로 10개월 연장되며 이에 따라 토목·조경·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지관리비 및 노무비 등 간접비로 인해 88억원의 추

축! 전주매일 창간

## 단단한 동지처럼

더 촘촘하게  
더 단단하게  
아기새의 작은 보금자리는  
수많은 노력과 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스스로 날아오를 때까지  
누구에게나 동지가 필요하니까

61년, 당신을 위해 만든 MG새마을금고,  
각각의 지역마다 든든한 동지가 되겠습니다

심장하는 MG  
희망이 되는 MG